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66호 【루게 제 24844호】 주제 104 (2015)년 3월 7일 (토요일)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쑤 말 리 싸 이 나 쏜 동 지

나는 당신의 생일 79돐에 즈음하여 열렬한 축하와 동지적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친선적인 라오스인민이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당 제9차대회 결정판과 나라의 사회경제발전계획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반제자주,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더욱 확대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당신이 건강하여 당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책임적인 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 정 은

주제104(2015)년 3월 6일 평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령도자의 유관철철명이 토의되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회의에서 역사

적인 결론을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신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지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시었다.
이 나라의 신문들인 《로씨야까야 가세 파》, 《아르ژ베크 이 파》, 《폼페르산

프》와 로스발트를 비롯한 인터넷포털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구마의 프렌사 라마나통신, 만마의 통신, 신문 《더 글로브 뉴 라이트 오브 만마》, 네팔신문 《머저두르》, 미국의 UPI통신, VOA방송, 일본의 교도통신, 도이칠란트방송연단 인터넷홈페이지 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네탈, 도이칠란트의 출판보도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김정은시대

국제사회계의 반향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사회주의문명국, 경제강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져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데 대하여 국제사회계가 찬탄을 아끼지 않고있다.
우루과이신문 《라 후베르두》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금 조선에서는 전반기12년제의 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 전반기무상치료제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고있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 유육이동병원 등이 일떠서 전문적인 의료봉사망이 더욱 훌륭히 갖추어졌으며 각 지역 수 많은 요양소들이 개진되고있다.
평양시 중심부의 창전거리를 비롯하여 조선의 도시와 농촌들에 살림집들이 계속 일떠서고있으며 인민극장, 플라민민원지, 휴정원 등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자들이 편이어서 건설되어 날로 높아가는 인민들의 요구에 맞는 문화생활조건들이 완비되고있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조선에서는 환경보호사업이 인민의 복리를 위한 신성한 애국주의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은 나라를 수렴하, 원림하, 파수원화하자!》라는 구호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나무심기 운동이 은 나라를 푸르게 하기 위한 전인민적애국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있는 수도

평양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하여 시민들은 북스러운 꽃들이 피어나는 사철푸른 나무들과 갈나무와 같은 여러종의 과일나무들을 심는다.
따뜻한 봄빛에 대지가 녹기만 하면 평양의 거리들은 아름다운 꽃바다에 잠기고 독특한 향기를 풍기게 될것이다.
공화국의 다른 도와 시, 군들에서도 나무심기사업이 팽배히 벌어지고있다.
로씨야의 하바롭스크변방 인터넷홈페이지 《하브인포》는 오늘 조선의 마시청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건설되어 국제사회계의 커다란 관심을 끌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 세계적인 스키장이 일떠선것은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마시청스키장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었다.
그이께서는 《〈마시청속도〉를 참조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라는 력사적인 호소문을 발표하시었다.
그이의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인민군인들은 새로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여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오늘 조선에서는 날에날마다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있다.
금속, 석탄, 전력, 철도운수, 기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간의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경공업부문 공장들에서는 갖가지 식료품들과 생활필수품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으며 농업부문에서도 알곡생산목표를 넘기려는 열풍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세로단계개척자들은 등관개간과 풀관조성, 축산기지건설에서 총공세를 벌리고 있다.
도처에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일떠서고 도시와 마을들이 신성으로 변모되고있으며 인민들이 물질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펼쳐지고 있다.
브라질경제사상연구원에서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에서는 국토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평양시를 원형복구가 잘된 공원속의 도시, 웅장화려하고 품격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꾸러려는 시민들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 시중심부에 멋있는 살림집들이 생겨나고 복지조성과 나무심기가 진행되고 있다.
조국의 활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아끼고 사랑하신 김정은령도자의 애국주의를 가슴깊이 새긴 조선인민의 뜨거운 충정을 의하여

나라의 산천은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인도네시아인본지방 중앙지대 리사회 총위원장장은 은 나라에 김정은령도자가 차민치고 21세기의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눈부신 기적들이 편이어서 일어나고있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은시대는 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은각하께서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이 만발의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는 번영의 시대이며 조선인민의 꿈과 이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는 희망의 시대라고 언급하였다.
쿠웨이트민족사업집 국제관계책임자는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닌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설계되고 집행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인도네시아신문 《우야라 카르야》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가고계시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오늘 조선에서는 인민생활상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인민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은각하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따르고 있다.
본사기자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조선녀성의 높은 혁명성과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

지난 70년간 수많은 여성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빛나는 위훈 창조

당과 어머니조국의 축복속에서 우리 여성들은 사회와 집단, 가정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고있다. 수많은 여성들이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종 주권기관에 대의원으로서 선견되어 국가사업과 사회정치생활에 참가하고있으며 당, 국가, 경제일꾼으로, 영웅, 로력혁신자로, 재능있는 과학자, 교육자, 의사, 작가, 예술인, 체육인으로 자라나 참된 삶을 누리고 있다.
우리 당과 조국의 영광스러운 70년력사에는 절세위인들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우리 여성들이 새겨온 값높은 위훈의 자욱자욱도 수놓아져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여성들은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수십년간의 조선녀성운동사는 절세위인들을 모시며 여성문예해결의 시대적모범을 창조해온 긍지높은 력사였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혁명적인 조칙에 따라 많은 여성들이 세기를 이었던 봉건적인 구속에 벗어나 사회에로 적극 진출하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졌다.
전국을 휩쓴 문맹퇴치열풍과 더불어 많은 여성들이 각급 학교에서 공부를 함으로써 해방전에는 꿈도 꿀수 없었던 대학생이 되어 자기의 희망과 포부를 한껏 꽃피워갔다. 그 날날 두

각지 여성들이 전선에 탄원하여 불붙이시는 결전장에서 비행사, 통신병, 간호원 등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전회의 나날 리순임, 태선회를 비롯한 여러 여성들이 공민의 최고영예인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받았다. 공화국의 첫 녀성영웅 조국회를 비롯한 녀성영웅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복속 다 바쳐 싸움으로써 조선녀성의 불타는 애국심과 골할줄 모르는 신념을 과시하였다.
우리 여성들은 전선과 후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높은 애국적열정과 헌신성을 발휘하였다.
남성들이 거의 없는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많은 팜산, 탄광, 공장들에서는 매일 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어느 한 탄광의 녀성로동자들은 매달 계획을 160%이상 넘쳐 수행하였으며 어느 한 신발공장의 녀성들은 하루실적을 종전의 3배이상 끌어올리면서도 그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녀성보양이명수로 은 나라에 널리 알려진 김력희를 비롯하여 사회주의근로자로 성장한 우리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인구들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혁명의 꽃, 시대의 꽃으로 더 활짝 피어났다.
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녀성들이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지니었다.
전후복구건설시기에도 우리 녀성들은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과 도시와 농촌, 문화기관 등 모든 부문들에서 높은 애국적헌신성과 로력적열성을 발휘하였다. 한 도번 녀성들은 조국회의를 앞두고 농경지를 개척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힘있게 떠맡고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자랑한 전군의 발구소리는 사회주의건설기에 이르러 더욱 힘차게 울려다졌다.
1970년대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 로력구조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48%를 넘어섰으며 10만명이 넘는 녀성기사, 기술, 전문가들이 자라나 사회주의건설을 적극 추동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3대기술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 녀성들을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결과 은갖고 여성들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봉건적 구속에 갇혀있는 사회주의근로자로 성장한 우리 녀성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인구들마다에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였으며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혁명의 꽃, 시대의 꽃으로 더 활짝 피어났다.
은 나라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온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나날에 도 우리 녀성들은 이악하고 노력하여 두발노동사도 힘들지만 북변명에서 세벌봉사를 성공시켰고 누가 보지못할 가족들과 함께 한생토록 두애산골의 한 평생을 묵묵히 지켜왔다.
조국보위초소를 굳건히 지키자는 녀성군관들과 병사들이 인신신사의 아름다운 뜻으로 피어났으며 군관의 안해들이 최고사령부의 작식대원, 최고사령부의 제2나팔수들로 성장하였다.
은 나라에 널리 알려진 김력희를 비롯하여 녀성들을 위한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과 은총속에 자식들을 많이 낳은 박금옥, 송금숙과 같은 녀성들이 모성영웅의 고귀한 칭호를 받아안았다.
30여년간을 트랙터로 운전수로 일해온 강령국의 한 녀성기계최초병과 10여년간 선반공으로 일하였던 30대에 벌써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송비로련김기업소의 한 녀성로동자를 비롯한 수많은 녀성근로자

들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주인공들로 자라났다.
위대한 새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녀성들은 당의 부강조국건설위업을 총적하게 반들어가며 녀성혁명의 존엄과 영예를 더 높이 떨쳐가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높이 평가해주신 영웅조선의 효녀들인 첫 녀성추기비행사들, 남성들도 타기 힘든 추격기를 녀성의 몸으로 용감무쌍하게 조종해나가는 이들이야말로 조선녀성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조국의 딸, 인민의 장한 딸들이며 불굴의 녀성혁명가들이다.
미디고 자랑스러운 녀자축구선수들을 비롯한 녀성체육인들도 높은 정신력과 기술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국제경기들마다에서 선전조선의 위용을 더욱 높이 떨쳐가고 있다.
우리의 녀성과학자들은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에 적극 기여하여 우리 조국의 필승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었으며 수학의 미지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세계 과학계를 깜짝 놀래우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당의 웅대한 대자연계조구조상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녀성들이 세로포기 축산기지건설에서 애국의 범람을 활하게 하고 만산의 자랑드노는 황금해의 새력사도 창조해나가고 있다.
사회주의협동법들과 과학연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녀성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이다》,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주체의 조선녀성운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더욱 빛내어나가자》 등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어 조선녀성운동이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불멸의 대가정을 마련해주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과 위업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명예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어머니날을 제정하도록 해주시고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와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전환적계기로 되도록 하여주시었다.
조선시대의 길에서 공관안해들과 아들이들에게 뜨거운 온정을 베풀시고 송도원구제소년단야영소와 옥류야동병원 등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시며 후대들의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친어머이 사랑은 오늘 우리 녀성들을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성장한 은 나라 녀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더욱 총적하게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오늘의 보람찬 대고조전군에서 조선녀성의 높은 혁명성과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떨쳐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3호발전소건설 본격적인 단계에서 추진

레성강발전소건설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레성강발전소건설자들이 3호발전소건설전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이따 마려원 발전소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한편 새로운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하여야 합니다.》
발전소건설지휘부 일꾼들은 도당위원회 지도밑에 레성강발전소건설을 하루빨리 끝내여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을 안고 정치지휘를 집중

적으로 벌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한 분출시키고 있다. 참모부서들에서는 단계별목표와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지휘원들이 늘 전투현장에서 내려가 길된 문제들을 제때에 료해장악하고 적극 끌어주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본격적인 단계에서 진행되고있는 3호발전소건설을 기어이 세기에 일어 팔려 불타는 혁명적열의를 안고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 있다.
엔제타임공사를 맡은 청년들격대의 지휘원들은 건설속도를 높일수 있는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찾아내고 로력

을 효과있게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고 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과제를 스스로 맡아 수행하고있는 사리원시대와 황주군대대의 지휘관들은 전투조직을 짜고들어 짧은 기간에 많은 공사의 많은 량을 해제의 성과를 거두었다.
발전기설비제타입공사와 수문기동공사를 맡은 레성강수력발전소건설사업소와 봉산화력발전소사업소 일꾼들과 건설자들도 이미 세워진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자체보장을 맡은 일꾼들이 자력영웅,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건설의 선행공



사회주의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보내주기 위한 생산물적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조선녀성의 노래

역사가 전하는 여성에 대한 노래들을 더듬어 보며

우리 조선녀성들은 세상에 당당히 자랑할만 한 자기의 노래보물고고를 가지고 있다. 그 어느 나라 녀성들에게도 조선녀성들이 가장 귀중한 재부여기고있는 명목의 보물고고, 그릇 속 심원하고 황홀한 음악세계는 없었었다.

3. 8국제부녀절을 맞으며 내 나라의 푸른 하늘가에 자랑스럽게 울려 퍼지고 있는 수많은 여성에 대한 명목들은 어떻게 태어났던가. 한편편편에 깊은 사연을 담고있는 그 노래들은 역사에 어떤 위대한 진리를 새겨주고있는 것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녀성운동은 훌륭한 전통과 역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유구하고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지고있는 만민들의 우리 민족사를 돌이켜보면 놀랍게도 여성에 대한 노래는 거의 찾아볼수 없다. 조선고대문화사의 첫 페이지를 올라가서 《공후》, 《남편을 잃은 녀의 슬픔을 노래한 이 고대가요의 기록》 이후 여성에 대한 노래는 수천년의 공백을 력사에 남겼다. 봉건시대에 와서 《아리랑》이나 《물레타령》과 같은 몇몇의 서곡들 가요가 있을뿐 여성에 대한 노래는 기록은 물론 구전으로 전해지지조차 없다.

민족의 령통을 이어주고 생활의 흐름을 엮어주는 주인공들이 바로 녀성들이었다. 녀성들은 그들에게 노래를 주지 못하였다. 인류문명의 꽃피를 해쳐보아도 고대중세, 현대에 이르는 기나긴 년대들에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극히 드물었다.

역사는 왜 녀성에게 노래를 줄수 없었는가. 음악은 자연과 사회, 인간생활에 대한 예술적 반영이다. 자연과 사회, 녀성의 주인공인 인간에 대한 노래는 맑아도 여성에 대한 노래가 창작되지 못한것은 바로 당대 사회들이 녀성을 인간의 세계밖으로, 음악의 대상밖으로 밀어내었기때문이다.

질곡의 수천년력사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 조선녀성들, 세계의 그 어느 나라 녀성들보다 더 비참한 운명을 대대로 팔자처럼, 유산처럼 이어받았던 우리 녀성들이었다. 이름 석자마저 못 가진 조선녀성이 어떻게 자기의 노래를 가질수 있던 말인가.

하지만 오늘날 조선녀성들은 5천년 민족사가 주지 못한 노래보물고고를 가지고있다. 이룩한 반만년에 자기의 노래라고는 다섯 손가락에도 꼽기 힘든 구술은 실음의 가요가 전부였던 이 나라 녀인들이 지금은 마치도 갖가지 아름다고 황홀한 꽃들이 만발한 대원관과 같은 거창한 음악세계속에서 마음껏 노래부르고 행복하게 살며 일하고있다.

조선녀성의 노래, 이를 논할 때 우리 녀성들이 제일먼저 펼쳐보게 되는것은 조선의 첫 녀성혁명가들이한 일의 녀투사들이 남긴 혁명가요유산이다.

권리를 박탈한 자본사회에 청춘의 붉은 꽃 피운 원한

혁명가요 《녀성해방가》는 항일혁명이 낳은 첫 명목들중의 하나이다.

《녀성해방가》, 《녀투사》와 같은 녀성혁명가들의 노래에는 작가, 작곡가의 이름이 없다. 그것은 이 투쟁의 노래들의 주인공들이 한두명의 녀성이 아니라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깨달고 운명의 불신화처럼 시들어가던 숙명의 지난날과 단호히 결별하고 투쟁에 나선 조선의 첫 세대 녀성혁명가집단이었기때문이다.

작고 연약한 꽃송이에 자기의 기구한 운명을 담아 《봉선화》 노래를 서글프게 부르던 이 나라 녀인들의 비참한 인생을 두고 놀라운 혁명가요를 지어낼수 있었는가.

조선녀성대전의 첫 갈피에 길이 빛나고 있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와 《H.H.H.H.H》가 그에 대답을 주고있다. 이 나라 녀인들의 비참한 인생을 두고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면서 혁명의 불길속에서 그들을 자기 운명의 강인한 주인으로 키우시려는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장속에서 태어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은 참다운 조선녀성의 노래의 첫 대문을 열어주었다.

1930년대 항일혁명의 진주들이서 널리 불리워졌던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피는 처녀》와 《H.H.H.H.H》!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꽃피는 처녀》의 주제가 《꽃피는 처녀》와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요 《H.H.H.H.H》의 주제가 《H.H.H.H.H》에는 슬픔과 눈물의 꽃을 팔며 온갖 멸시를 받아야 했고 생애같은 남편과 자식을 침략자의 총칼에 잃어오 피눈물만 삼켜야 했던 꽃분비와 울남이 어머니와 같은 이 나라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조선녀성들의 운명개척의 방도가 누구에게나 알기 쉽게 뚜렷이 밝혀져있다.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제사상의 진리가 반영되어 명작들은 어제날 눈물의 《봉선화》의 주인공들이었던 조선녀성들이 혁명가요 《녀성해방가》의 주인공으로 자기 운명을 극적으로 전환시킬수 있게 한 령통의 종소리, 혁명의 격문인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참다운 노래들이 태어났수 있는 귀중한 짝과 불씨가 되어준 서곡과도 같았다. 그 어떤 심오한 저서보다 이 나라 녀성들이 우리 나라 녀성들의 지형적형상으로 소박하면서도 진실한 생활속에서 담아 제기한 녀성해방의 위대한 사상은 우리 나라 녀성운동사에서 피출처럼 판공되어 호르면서 조선녀성들의 훌륭한 명목을 남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

녀성들의 진정한 삶의 노래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태어나는가 하는것은 인류음악사가 오래동안 제기하고 헤매하려고 한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명곡집에는 개별적인 작곡가들이 지은 명작들이나 한두명의 녀성작곡가들이 지은 녀성들의 심리정서세계를 반영한 서정가요들도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서정과 따뜻한 정세계를 노래한 작품들은 있었어도 당대 녀성의 지위와 역할, 운명과 처지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있는 혁명사상을 힘있게 구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녀성들의 운명문제를 심오하게 밝혀준 참다운 녀성의 노래는 찾아볼수 없었다.

과연 인류력사와 현대에 녀성들이 자기의 노래라고 당당히 자부하며 녀성공동의 재부로 사랑하고 즐겨 부를 노래들이 몇몇이나 될 것인가.

녀성들이 창조한 문화재부가 적어서도 아니고 녀성해방운동의 령통이 짧아서도 아니다. 또 재능있는 녀성작곡가가 없어서도 아니다.

녀성문제의 근본이 해결되고 녀성들의 운명과 처지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녀성의 고전적명작들이 《꽃피는 처녀》

만, 녀성들이 령투사대에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당당히 등장할 때에만 진정한 녀성의 노래가 태어날수 있음을 조선녀성의 운명사, 조선녀성의 음악사가 증명해주고있다.

노래에는 그 시대의 사회상과 인간들의 구체적일 생활감정이 비친다. 노래는 해당 시대 인간들의 운명과 사회정치적, 그 존재 가치를 알수 있게 하는 생동한 거울이라고 말할수 있다. 녀성들이 노래의 주인공으로 나서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이 바로 령통의 주인공,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므로 자기의 권리를 가졌다는것을 실증하는것으로 된다.

손에 무장을 잡고 혁명의 길에 걸연히 나선 항일의 녀투사들이 처음으로 불렀던 《녀성해방가》, 《녀투사》! 결코 고요한 음악실의 피아노반주에서 태어난 노래들이 아니었다. 백두의 눈보라를 반주삼아, 백두의 총성을 리듬삼아 실현속에서 태어난 선물이었고 혁명의 진리를 깨달은 녀투사들이 청춘도 생명을 다하며 바치며 령통을 걸었던 자들의 새 령통이었다.

온갖 무너짐과 분권적역업, 침략자의 구두발발에 짓밟혀 눈물로 옷고름을 적시며 슬픔의 《아리랑》, 《봉선화》를 부르던 녀성들이 인류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희망과 격동, 기백으로 약동하는 녀성혁명가들의 새 노래들을 부르게 된것은 조선녀성들의 운명에서 일어난 기적과도 같은 사변이었다.

조선녀성의 새 노래들의 출현, 그것은 볼전적적목적에 의해 수천년동안 뒤고방에 갇혀있던 조선녀성들이 혁명가요의 1선에 당당히 나섰다는것을 온 세상에 알린 령통의 선언과도 같은 시대의 메아리였다. 조선의 녀성혁명가들이 부른 혁명가요들은 노래 이전에 세상에 가장 힘있게 광의한 조선녀성들이 선형로써 자기의 새 령통을 쓴 운명개척의 자랑스러운 첫 페이지였다. 혁명가요들을 부르며 이 나라의 어머니들과 딸들을 애국의 일념으로 사랑을 불태우고 남성들조차 감당하지 어려운 육체적부담과 정신적고통을 겪으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고 일제를 조국방역에서 물러나기 위한 성스러운 싸움에 생명을 청춘도 거경도 다 바쳤다. 원수들에게 두눈을 빼앗기고도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고 웨치던 녀투사, 불꽃의 총구앞에서 《적기》의 노래로 원수들을 전멸케 한 투사들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혁명의 노래들이 울리고있었다.

항일의 녀투사들의 신성한 박동이 그대로 살아 맥동하는 노래, 선명함의 피와 목숨과 바꾼 조선녀성들의 노래는 바로 이렇게 태어났다.

녀성들의 사회적처지의 개선이나 극적인 운명전환은 시대와 령통이 저절로 가져다주는것이 아니며 녀성에 대한 명목은 그 어떤 뛰어난 작곡가나 작가가 있다고 하여 태어나는것이 아니다. 5천년 민족사가 새겨진 조선녀성의 운명과 투쟁의 음악사는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 때 노래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수 있으며 참다운 녀성의 노래는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투쟁속에서 태어날다는것을 온 인류음악사와 녀성해방운동사나 하나의 진리로 새겨주었다. 또한 자주적인간의 운명개척의 길을 밝힌 위대한 주제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투쟁력사와 어제도 오늘도 레일도 영리한 주제의 명맥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조선녀성의 노래의 변함없는 혁명적정신을 다시금 뚜렷이 확고히 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꽃피는 처녀》

와 《H.H.H.H.H》, 혁명가요 《녀성해방가》, 《녀투사》와 같은 귀중한 혁명가요유산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선녀성들의 노래는 그 어떤 천지공파속에서도 사소한 변색을 모르는 순결하고 아름답고 힘있는 녀성혁명가들의 노래로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발전할수 있었다.

오늘 우리 조국과 인민은 백두의 칼바람속에서 조선녀성의 새 노래들을 안아온 첫 세대 녀성혁명가들을 성스럽게 추억하고있다. 항일의 녀투사들은 자기의 꽃같은 청춘, 고귀한 피와 목숨과 바꾸어 이 땅에 조선녀성의 참다운 첫 노래들을 새겼다. 이렇듯 값비싼 대가로 개척된 조선녀성들의 음악사기에 우리 녀성들은 세대에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고결한 녀성에 대한 노래의 령통을 수놓아올수 있었던것이다.

녀성들은 누구나 노래를 특별히 사랑한다. 생활의 모든것이 노래처럼 아름답고 노래처럼 깨끗하고 진실함을 바라는 녀성들의 순결한 마음은 그들에게 음악에 대한 날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하였다. 일러서도 가정에서도 언제나 아름답고 즐거운 선율을 살며 일하기를 바라는 우리 녀성들에게 당과 조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시어와 선율을 골라 년대와 시대마다 명목들을 안겨주었고 혁명의 꽃, 나라의 꽃, 자기의 꽃이라는 부름과 더불어 그에 따르는 각양각색의 주제와 양상의 명목들이 태어나게 하였다.

오늘날 조선녀성들에게는 수천년의 기나긴 령통을 봉상하고도 남을 녀성의 노래의 바다가 펼쳐져있다.

사상주제별로 찾아보고 시대별로 구분하여보아도 우리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그 수를 헤아릴수없이 많다. 세계적으로 녀성들에 대한 명목은 제일 많이 가지고있는 나라 녀성들은 조선녀성들이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녀성들의 운명에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녀성들의 지위가 날로 높아지는 위대한 사변이 일어났고, 그때의 생활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풍요해질 때마다 멋진 녀성의 노래들이 태어나고 하였다. 녀성들의 노래가 날이 깊어지는것은 녀성들에게 보다 많은 권리와 행복이 차례되었는것을 실증해주는 뚜렷한 증시로 되었다.

조선녀성에게 있어서 노래는 자기의 존엄이었고 권력이었다고 생활 그자체였다. 조선녀성이 자기의 진정한 노래를 가졌다는것은 자기의 권리를 가졌다는것이 바로 자기의 존엄을 찾았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조선녀성의 노래의 발전력사는 곧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령통이 일어난 위대한 전변의 령통이었으며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떠맡고가는 녀성혁명가, 녀성애국자들의 창조와 투쟁의 서사시였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에 녀성들의 세계적적목이 풀리는 령투사적인 사변인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되고 조선녀성의 음악사에서 특별한 분수령을 이루는 명목이 태어났다. 항일의 녀투사를 김정숙이 부르면서 새 조국혁명의 날에 공장과 농촌의 녀성들을 찾아가시어 즐겨 부른 가요 《녀성의 노래》였다.

해방후의 첫 녀성주제명곡인 이 가요에는 새 조선이 가져다준 녀성들의 운명에서 위대한 변혁, 나라의 주인으로 된 조선녀성들의 위대한 령투사적지위 함으로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조선녀성은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 공장과 농촌, 학교의 대문들이 녀성들을 향하여 활짝 열렸다. 마음껏 일하고 배우고 노래부를수 있는 자유와

행복의 활무대가 녀성들앞에 펼쳐졌다. 밟기던 누나는 식칼 들고 나오라고 혁명가요 《총동원가》를 부르며 항일의 녀투사들이 그토록 바라던 생활, 세기를 두고 갈망하던 녀성의 새시대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 자기의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조선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은 추호도 흔들린적이 없었고 《씩씩하게 못지장 장군님 두리에 찬란한 우리 조국 완전독립 위하여》라는 노래구절처럼 살며 싸워나가는 우리 녀성들의 생활은 약동하는 활력과 푸르른 희망, 무한한 행복이 넘쳐흘렀다. 근 70년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녀성의 노래》는 제목그대로 우리 녀성들에 대한 노래의 대표작으로, 5천년 민족사에서 처음으로 나라의 주인이 된 조선녀성들의 존엄높은 삶의 선언으로, 《나라 녀성해방사의 어제와 오늘, 레일을 훌륭한 예술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기념비적결정으로 빛나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 녀성들의 운명에서 또 얼마나 놀라운 사변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훌륭한 명목들이 창작되었던가. 전지가요 《우리 녀 영웅되셨네》, 《샘물터에서》, 《아무도 몰라》, 《어머니의 노래》, 《노래》와 같이 전선의 명사들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위해 고향없이 싸우느라 조선녀성들의 불굴의 모습, 가슴벅찬 생활을 담은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들이 열정의 포탄처럼 쏟아져나왔다.

천리마고성시기에 우리 조선녀성들은 천리마기수, 시대의 선구자로 솟구쳐올랐으며 《천리마선구자의 노래》와 같은 유명한 노래들의 주인공이 되었다.

예술영화 《정방곡》의 주제가 《천리마 선구자의 노래》, 천리마시대 예술의 대표작인 이 명목은 위대한 변혁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조선녀성들이 어떻게 천리마의 기수로까지 될수 있었으며 혁명과 건설의 어떤 힘있는 령통으로 성장하였는가를 령투사에게 응변적으로 실증해주었다.

조선녀성의 아름다움과 사상정신적지위는 선군시대와 더불어 보다 높은 경지에 올랐다.

녀성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애국은 손에 총을 잡고 조국수호의 길에 나서는것이다. 항일의 녀투사처럼 선군시대 녀성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자신뿐 아니라 가정도 지키고 조국의 미래도 지켜냈으며 총잡은 남편들과 함께 전초가의 아름다움 꽃으로, 보아역세고 강한 선군의 꽃으로 피어났다. 이러한 혁명전선생활속에서 《나는 권의 안해로요》, 《나는야 선군시대 총대처녀》, 《녀성해방투쟁의 노래》, 《명사들은 나를 보고 어머니로요》, 《선군시대 녀성한가》와 같은 명목들이 나왔다.

날이 통일변혁하는 선군시대에 걸맞게 태어나는 조선녀성의 노래들은 새 세대 녀성혁명가들에게 안겨주는 시대의 값높은 표창으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꽃다발로 되었다.

우리 녀성들이 향유하는 음악세계는 녀성의 지위와 역할의 끊임없는 변천과 더불어 날이 갈수록 더욱 풍만해지고 이채로워지고있다.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그에 보답하려는 우리 녀성들의 애국충성의 사사시며 더욱 눈부시게 수놓아질수록 녀성들에 대한 노래는 명목의 대하를 더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공화국의 첫 녀성추진기행사들이 태어난 놀라운

현실은 머지않아 녀성비행사들에 대한 희한한 명목을 남게 될것이다.

울림에 핀 봉선화로부터 하늘끝에 닿은 조선녀성들의 영광과 행복에로의 극적인 운명의 전환은 조선녀성들의 음악세계를 더욱 황홀하게 펼쳐주고있다.

조선녀성들에게는 녀성의 노래의 희한한 음악세계를 끝없이 펼쳐주는 위대한 뿌리가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한대목, 한대목 다들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피는 처녀》와 《H.H.H.H.H》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녀성해방가》와 같은 혁명가요들이 태어날수 있었겠는가. 불후의 고전적명작 《진달래》, 《나의 어머니》를 창작하시며 마음속으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싸운 조선의 녀성혁명가들에게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녀성들에 대한 노래들을 훌륭한 시대의 명목으로 완성시켜주시기 위하여 그토록 심혈을 바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떠나 어떻게 《녀성들도 모두다 힘을 합치면》, 《웃을 삼입도의 메아리》, 《떠나는 마음》, 《우리 집사람》, 《우리 며느리》와 같은 명목들에 대하여 말할수 있랴.

사랑과 정, 서정성과 아름다움만 놓고 녀성에 대한 노래의 진정한 가치를 논할수 없다. 조선녀성들의 노래는 결코 가사와 선율을 로만 엮어지는것이 아니다. 우리 녀성들의 노래에는 그 어느 나라 녀성들보다 가지고있지 못한 위대한 사상과 신념이 담겨져있고 고귀한 령통과 진통이 비껴있으며 한없이 파사로운 사랑과 믿음이 흐르고있다.

진정한 녀성의 노래는 령통이 주는것이 아니라 녀성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는 사상과 신념을 안겨주고 무한한 사랑과 믿음으로 녀성들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만이 안겨줄수 있는 아름다운 운명의 송가, 삶의 찬가임을 조선녀성대전을 펼쳐서 우리 모두는 다시금 심오하게 절감하고있다.

참다운 녀성의 노래가 조국강산을 울려 퍼진 80여년의 령통은 5천년 민족사에서 누구도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길이 짧은 이 나날은 녀성들의 운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 녀성들이 참된 삶의 새 령통을 열어준 우리의 조선혁명이 얼마나 무서웠고 위대한 인간의 위업인가를 보여준 세계적인 전변의 시대였다.

조선녀성의 노래! 그것은 정령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꽃피우려 축복받은 우리 녀성들모두의 삶이 되고 궁지에 몰려있다.

부피두터운 조선녀성대전에 오른 수천편에 달하는 노래들중에서 녀성의 노래는 가장 아름답고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이루고있다. 세상에 없는 노래보물고고를 가지고 있는 조선녀성들이아말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궁지높은 녀성들이라면 우리는 몇몇이 자랑한다.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역세게 전진하는 천만민들의 최후승리의 전군가속에는 우리 녀성들의 노래가 힘있게 울리고있다.

자기들이 리상하는 사회, 자기들이 희망하는 나라, 가장 행복하고 문명한 인간세계를 향해, 녀성들의 행복의 권리가 그대로 기쁨의 노래로 되는 사회주의문명국가를 향하여 조선의 녀성들은 피를 우렁차게 함장하며 경애하는 원수님 두리에 굳게 뭉쳐 세계 나아갈것이다.

우정혁, 리수정



애국의 한마음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육종연구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산림과학원 애국수목조각배양연구소에서- 본사기자 한 광명 작음

바다가양식을 대대적으로 벌리자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다양식에서는 섭조개를 많이 양식하는것이 기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수산정책을 높이 받들고 서호수산사업소에서는 최근년간 섭조개양식을 통이 크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대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을 다같이 벌고나가야 합니다.》

다시마양식뿐 아니라 섭조개양식도 대대적으로 하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걱정부터 앞세웠다. 그럴만도 하였다.

섭조개양식을 하자면 많은 양의 락피개가 있어야 하였는데 사업소자체로 그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김두현, 김정남동무를 비롯한

실리적인 말뚝식섭조개양식

서호수산사업소 일꾼들의 사업에서

일꾼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 방도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였다. 그리고 섭조개양식과 관련한 책들도 많이 보았다.

이 과정에 섭조개양식에 말뚝식방법을 받아들여기로 하였다. 섭조개양식에는 락피개와 바늘을 리용하여 락피개로 시설물을 고정시키고 거기에 불임감을 드러우는 락피, 락피를 설치하여놓고 거기에 새끼섭조개가 붙은 불임감을 드러우는 락피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업소의 실정에서는 연안의 얕은 바다물에 말뚝을 박고 거기에 새끼섭조개가 붙은 불임감을 걸어놓는 말뚝식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었다. 일꾼들은 어느 한 립산사업

소와 락피를 가지고 길이가 8m이상 되는 나무를 실었다. 그것을 배에 실어 바다에 내었다. 그러면 바다밑층에 나무말뚝을 박는것이 문제였다. 흔들리는 배에서 인력으로 그 깊이를 측정하는 바늘을 놓기 힘들었다. 인력으로 풀기 힘든 문제였다.

이에대도 일꾼들은 대중의 창조적지혜를 발동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다. 일꾼들은 재간있는 기술자들을 선발해서 이 정지사업을 맡게하고 그들의 창조적적구성을 불러일으켜 말뚝박는 기계를 하루빨리 완성하도록 떠맡아주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요구한 도구들을 만들어주어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을 따라세우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다시마양식을 훨씬 늘일 목표

구미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생산지휘를 전무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조건이 어려웠지만 사업소일꾼들은 령판단위외의 건립한 락피를 가지고 양식자재화사업을 앞세우면서 종업원들을 양성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내부예비를 적극 락피동원하여 각종 바늘과 락피개, 배부이용 락피를 확보한 사업소에서는 락피를 늘일었다. 장마철과 기관수리정비를 하면서 수십척의 천정마선을 묶는 일을 동시에 내밀어 다시마양식을 늘일수 있게 하였다.

새로 늘인 양식면적까지 합쳐 수백정보의 면적에 다시마를 내야 하는 전투는 위대한 일이 아니었다. 제일 긴장한것이 로력이었다.

일꾼들과 종업원들모두가 드넓은 양식장을 타고앉아 사나운 바다날씨를 이겨내며 모태를 다그쳤다. 종업원들의 안해들도 모태를 최치하게 질

을 따라세우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도 쓰게 되었으니 얼마나 경제적인가. 그리고 태양이 종전에 비하여 든든하기때문에 불임감에 새끼섭조개를 많이 붙여 크게 키워도 지장이 없이 없었다. 그만큼 섭조개수확량도 늘일수 있었다.

사업소의 섭조개양식장에서는 불임감에서 새끼섭조개를 너무도 왕성하게 자라 섭조개가 끊어지지 않을때까지 잘 돌보아 준다. 그래서 수확방법으로 섭조개를 따들이었다.

여기서 재미를 보게 된 포항 최희민, 직장장 리현복 동무를 비롯한 일꾼들과 재배업직장의 양성공들은 앞으로 말뚝식섭조개양식장을 더 늘일 목표를 내걸고 준비사업을 다그치고있다.

무슨일이냐 과학적으로 타산하고 실천해나가는 이들의 진취적인 일꾼들이 얼마나 좋은가. 특약기자 박동석

있었다. 특히 청년동맹원들이 공장에서 매일 많은 다시마를 생산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에서는 생산된 다시마를 인민들에게 지체없이 보내주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글 및 사진 특약기자 리승철

물려다주고있다. 양식3직장을 비롯하여 각종 작업반의 초급일꾼들과 양성공들은 찬 바다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않고 다시마양식을 즐기며 내밀

김정수평양제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김정수평양제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가 수여되었다. 공장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여 달력전 혁명붉은기를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수여식이 6일에 진행되었다. 수여식에서는 김정수평양제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함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전달된 다음 표창장과 기발이 수여되었다.

3대혁명붉은기경취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종업원들에게 훈장이 수여되었다. 이어 기사장 최혁, 직장장

장혜경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백두산결사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장이 걸치는 자랑찬 행로와 대중운동의 불길속에 이룩된 성과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2중3대혁명붉은기를 평화한 단위의 영예를 빛내어 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당의 경공업방침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경쟁의 동력을 높이 올려 질 좋은 제품을 많이 생산함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김정일에국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공장의 수렴률, 원리률, 파수원회율을 적극 다그치며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여 종업원

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줄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율세선언사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 당중앙위원회 당중앙상시위원회 공동주호를 높이 받들고 뜻깊은 율세에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이룩함으로써 10월의 대추전을 빛내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축하토론을 한 평양화장품공장 지배인 김현은 김정수평양제사공장의 모범을 따라배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이려는 사업소 일꾼들이 율세에 이바지할것을 기대하였다.

수여식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조국과 인민이 사랑하는 시대의 아름다운 꽃들(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땅에 마련된 모든 혁명의 전취물들과 만민대제의 기념비적창조물들에는 우리 녀성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습니다.》

꽃길은 명절이 다가온다. 벌써부터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안해들, 누이들에게 안겨줄 꽃다발을

이 엮어지듯 거리와 마을, 일터와 가정들에서 꽃향기가 그윽히 풍긴다.

백두산위인들의 크나큰 사랑과 은총속에서 사회의 꽃, 시대의 꽃으로 만사람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녀성들, 일터마다에서 그들이 수놓아가는 가지가지의 혁신과 위훈을 전하고있어 우리는 3.8국제부녀절을 앞두고 취재길에 올랐다.

조국에 드리웠든 마음뿐이다.

자라면서는 한한m의 천에 조국을 받드는 충정을 새기며 처녀시절 그때처럼 변함없이 조국을 받들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가는 우리의 미더운 직포공들, 꽃이든 이보다 더 품고 향기이면 이보다 더 그윽하다.

문득 우리의 눈앞에 낮은 영웅의 모습이 안겨왔다. 1970년대 영웅 전우화녀성이다. 80을 가까이하는 몸이지만 일 솜씨만은 변함없이 없다.

《예가 그렇고있으면 뭘하겠나. 우리 처녀들이 하루빨리 기능공이 되겠다는 로세대영웅인 제가 가만있을수가 있어가지요.》

그의 소박한 한마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자기

는 돌리지 못해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기세차게 일하던 그 시절처럼 푸르스름한 한결 같았다.

직장의 곳곳에서 혁신자들을 만나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거늘 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로동이!
그 보람찬 로동속에서 우리의 녀성근로자들이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하게 된다.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가슴 가득 안고 사회와 집단의 열렬한 축하를 받는 이제날 준비대원들의 행복 한 모습을 그려보며 1직포 직장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위훈과 더불어 남편들과 병사들을 위해 수십년세월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부대군인가족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여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어 헌신의 길을 걸어온 군인가족들, 그 길에서 리혜숙, 최광희동무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장선미, 리영희, 김춘실, 김영선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군인가족들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형성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준마처녀들의 자랑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종합직장 1직포직장 혁신자직포공들

초봄의 바람은 기승을 부렸지만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의 구내 길을 걷는 우리의 마음은 후텁기만 했다. 공장일군으로부터 1직포직장에서 삼반년제회완수자들이 여러명 나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들었기때문이었다.

작작 직기들이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기대사이를 오가는 직포공들, 빨간머리수건을 날리며 기대를 살피는 처녀들의 모습도 대견했지만 이제날 준비대원들이 이름떨친 혁신자직포공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더웠다.

일터에 나들은 속보마다에 그들의 이름이 빛나고있었다. 문장순, 리영희, 김영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로력영웅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김일성평년영예상수상자로, 선진시대 공로자로 자라난 직포공들 문장순동무는 말했다.

《다기대운동을 벌여 3년분, 5년분과제를 해내던 처녀시절을 잊을수 없습니다. 하루일 닦쳐해도 성취 안하던 그때처럼 더 많은

천을 짖 마음뿐입니다.》

문장순동무가 직포공으로 일한지 20년이 된다고 한다. 그 나날 그는 처녀시절에도, 가정에서 이루어 부둥이 업다가 된 후에도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으며 2년분, 3년분과제를 해내곤 했다. 올해엔 벌써 삼반년 계획완수자가 되었다.

어제 그뿐만이요.

다음직기에서 우리는 직포공 리영희동무도 만났다. 공장에서 일해오는 지난 21년간 그는 해마다 년간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혁신자직포공이다. 4살짜리 자식을 거느린 어머니이고 한가정의 주부인 리영희동무, 한공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오직 키워주고 내세워주는 어머니상을 위해 로동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온 그녀에게 몇해전에는 선진시대 공로자의 영예를 지니었고 얼마전에는 공훈방직공정다훈 수여자였다.

오영희, 김영실동무를 비롯한 이제날 준비대원들을 만나보아

도, 60이 지난 오늘도 작업반을 혁신자직포원으로 이끌어가는데 급진작업반장의 심정을 들여보아도 그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생각은 오직 하나 더 많은 천을 짖는

《예가 그렇고있으면 뭘하겠나. 우리 처녀들이 하루빨리 기능공이 되겠다는 로세대영웅인 제가 가만있을수가 있어가지요.》

그의 소박한 한마디 말이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자기

를 돌리지 못해도 그의 마음은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기세차게 일하던 그 시절처럼 푸르스름한 한결 같았다.

직장의 곳곳에서 혁신자들을 만나보는 우리의 가슴은 한없이 부풀거늘 했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의 생활, 우리의 로동이!
그 보람찬 로동속에서 우리의 녀성근로자들이 3.8국제부녀절을 맞이하게 된다.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가슴 가득 안고 사회와 집단의 열렬한 축하를 받는 이제날 준비대원들의 행복 한 모습을 그려보며 1직포 직장을 떠나는 우리의 마음도 즐거웠다.

위훈과 더불어 남편들과 병사들을 위해 수십년세월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부대군인가족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여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어 헌신의 길을 걸어온 군인가족들, 그 길에서 리혜숙, 최광희동무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장선미, 리영희, 김춘실, 김영선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군인가족들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형성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꽃피우는 길에서 예술영화의 역인물로만 살수 없는 저희들이요.》

예술영화 《소원》에 출연하였던 안신애동무의 이 말속에서 우리는 나라의 만민노라, 선진시대의 정령으로 살려는 군위부대군인가족들의 불같은 열망을 느낄수 있었다.

위훈과 더불어 남편들과 병사들을 위해 수십년세월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부대군인가족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여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어 헌신의 길을 걸어온 군인가족들, 그 길에서 리혜숙, 최광희동무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장선미, 리영희, 김춘실, 김영선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군인가족들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형성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꽃피우는 길에서 예술영화의 역인물로만 살수 없는 저희들이요.》

예술영화 《소원》에 출연하였던 안신애동무의 이 말속에서 우리는 나라의 만민노라, 선진시대의 정령으로 살려는 군위부대군인가족들의 불같은 열망을 느낄수 있었다.

위훈과 더불어 남편들과 병사들을 위해 수십년세월 헌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부대군인가족들의 뜨거운 지성이 깃들여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병사들의 친어머니, 친누이가 되어 헌신의 길을 걸어온 군인가족들, 그 길에서 리혜숙, 최광희동무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았으며 장선미, 리영희, 김춘실, 김영선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군인가족들이 조선인민군 제2차 군인가족형성자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우리 장군님의 소원을 꽃피우는 길에서 예술영화의 역인물로만 살수 없는 저희들이요.》

예술영화 《소원》에 출연하였던 안신애동무의 이 말속에서 우리는 나라의 만민노라, 선진시대의 정령으로 살려는 군위부대군인가족들의 불같은 열망을 느낄수 있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녀성혁신자들

영원한 가족사진을 심장에 안고 살리

예술영화 《소원》의 원형들을 찾아서

이들이었던것이다. 원관의 안해인 손은실동무는 목메인 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텔레비전에서 흠뻑지날리는 힘찬 건설장을 현시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상을 뵈옵는 순간 최원발장소건설장을 찾아오셨던 장군님을 뵈는것만 같았습니다.》

그의 이 말에 가족들모두가 숨넘어 눈빛으로 방안벽에 모신 은성장은 초치를 위해주실줄을, 다정한 그 사랑속에 자신들을 원형으로 하여 만든 예술영화 《소원》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지막까지 지도해주신 영화였으니 정녕 우리 장군님은 생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속천군 약전농장의 녀성혁신자들

얼마전 우리가 속천군 약전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농장의 자랑을 듣고싶어 찾아왔던 우리의 말에 리당일군군 대변이 회색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장에 자랑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농장의 녀성들이 대한 자랑이지요.》

녀성들에 대한 자랑! 우리는 자못 호기심이 통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말할것있습니디. 권위위원장 김성희동무를 비롯하여 일 잘하기로 소문나 우리 농장의 녀성들이 좀 류다른 호칭으로 불리우고있다는것입니다.》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들을 련기며 꼽아내려 하자, 작아도 고무찰, 김정남,

가장 아름다운 모습

속천군 약전농장의 녀성혁신자들

얼마전 우리가 속천군 약전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농장의 자랑을 듣고싶어 찾아왔던 우리의 말에 리당일군군 대변이 회색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장에 자랑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농장의 녀성들이 대한 자랑이지요.》

녀성들에 대한 자랑! 우리는 자못 호기심이 통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말할것있습니디. 권위위원장 김성희동무를 비롯하여 일 잘하기로 소문나 우리 농장의 녀성들이 좀 류다른 호칭으로 불리우고있다는것입니다.》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들을 련기며 꼽아내려 하자, 작아도 고무찰, 김정남,

가장 아름다운 모습

속천군 약전농장의 녀성혁신자들

얼마전 우리가 속천군 약전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농장의 자랑을 듣고싶어 찾아왔던 우리의 말에 리당일군군 대변이 회색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장에 자랑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농장의 녀성들이 대한 자랑이지요.》

녀성들에 대한 자랑! 우리는 자못 호기심이 통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말할것있습니디. 권위위원장 김성희동무를 비롯하여 일 잘하기로 소문나 우리 농장의 녀성들이 좀 류다른 호칭으로 불리우고있다는것입니다.》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들을 련기며 꼽아내려 하자, 작아도 고무찰, 김정남,

가장 아름다운 모습

속천군 약전농장의 녀성혁신자들

얼마전 우리가 속천군 약전농장을 찾았을 때였다.

농장의 자랑을 듣고싶어 찾아왔던 우리의 말에 리당일군군 대변이 회색을 띄우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농장에 자랑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으뜸가는 자랑이 있습니다. 바로 농장의 녀성들이 대한 자랑이지요.》

녀성들에 대한 자랑! 우리는 자못 호기심이 통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우선 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가지 먼저 말할것있습니디. 권위위원장 김성희동무를 비롯하여 일 잘하기로 소문나 우리 농장의 녀성들이 좀 류다른 호칭으로 불리우고있다는것입니다.》

리당일군은 이렇게 말했다. 그 이들을 련기며 꼽아내려 하자, 작아도 고무찰, 김정남,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값있는 한생은 보람찬 삶의 순간순간으로 꽃피고 빛나는것입니다.》

이른이십 평천구역의 거리들에 들어서면 산뜻한 옷차림으로 도로들을 관리하고있는 녀성들의 모습을 볼수 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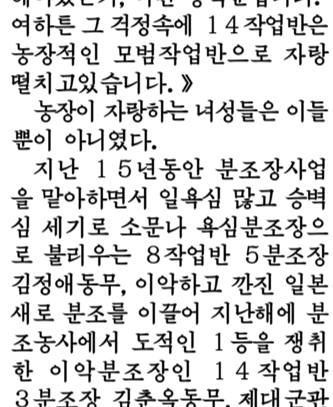
예술영화 《소원》의 원형들이던 군인가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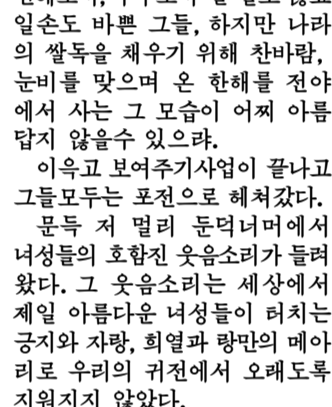
속천군 약전농장 녀성혁신자들



속천군 약전농장 녀성혁신자들



속천군 약전농장 녀성혁신자들



속천군 약전농장 녀성혁신자들

꽃주단 펼쳐가는 오늘의 래성할머니들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원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 피약물이 내려조이는 무더운 여름철, 락업이 지는 가을철 수도의 거리들에서 이들은 변함없이 도로를 쓸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꽃주단 펼쳐가는 오늘의 래성할머니들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원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 피약물이 내려조이는 무더운 여름철, 락업이 지는 가을철 수도의 거리들에서 이들은 변함없이 도로를 쓸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꽃주단 펼쳐가는 오늘의 래성할머니들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원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 피약물이 내려조이는 무더운 여름철, 락업이 지는 가을철 수도의 거리들에서 이들은 변함없이 도로를 쓸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꽃주단 펼쳐가는 오늘의 래성할머니들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원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 피약물이 내려조이는 무더운 여름철, 락업이 지는 가을철 수도의 거리들에서 이들은 변함없이 도로를 쓸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꽃주단 펼쳐가는 오늘의 래성할머니들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원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 피약물이 내려조이는 무더운 여름철, 락업이 지는 가을철 수도의 거리들에서 이들은 변함없이 도로를 쓸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꽃주단 펼쳐가는 오늘의 래성할머니들

평천구역도시시설관리소 새마을작업반원들

눈보라 몰아치는 추운 겨울철과 쌀쌀한 바람이 부는 봄철, 피약물이 내려조이는 무더운 여름철, 락업이 지는 가을철 수도의 거리들에서 이들은 변함없이 도로를 쓸었다. 하기에 언제나 환하고 깨끗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이곳 도로관리원들에게 정다운 눈길로 인사를 보내곤 하는것이요.

이들속에는 맑은 일을 잘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안은 작업반원도 있고 조선로동당원의 영예를 지닌 작업반원도 있었다. 날과 달이 흘러 세대가 바뀌었으나 총정의 바름은 변함없이 이어졌다.

어려해전 리명화동무가 작업반으로 탄원해온데, 이어 지난해 2월 전운주, 김주자, 김영애동무들을 비롯한 녀성들이 순결한 마음으로 도로를 지켜갈 맹세를 안고 작업반원이 되었다.

지난해 3월 최고인민회의

혁명전사들이 받아안은 뜨거운 아버지정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이 땅의 찬란한 전통을 한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혁명전사들의 삶은 꽃없이 빛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른번제 생일을 맞는 최홍중앙위원회 부장 박일만과 아흔번째 생일을 맞는 보통강구역 류경2동 박정숙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주시였다.

만족노의 설움을 안고 태어난 박일만의 해방후 일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조선의 공중교예에 완전히 반하다

제4차 휘례라스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교예종목에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새해에 들어와 제39차 몽떼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교예종목들이 금상을 수여받는데 이어 제4차 휘례라스국제교예축전에서 축전최고상을 쟁취하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에스빠냐의 휘례라스에서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몽골, 브라질, 중국, 에스빠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조선의 공중교예에 완전히 반하다

제4차 휘례라스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교예종목에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새해에 들어와 제39차 몽떼카를로국제교예축전에서 우리 교예종목들이 금상을 수여받는데 이어 제4차 휘례라스국제교예축전에서 축전최고상을 쟁취하여 온 나라 군대와 인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에스빠냐의 휘례라스에서 진행된 축전에는 우리 나라와 로씨야, 몽골, 브라질, 중국, 에스빠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학기 기술축전 진행

【평양 3월 6일말 조선중앙통신】제30차 김일성종합대학교 과학기술축전이 3일부터 6일까지 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 박사원생들이 참가한 축전은 과학기술발전표 및 전시회, 단위발전경연, 새 기술표현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당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받들고 대학에서는 나라의 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

사회주의는 여성중시의 화원, 자본주의는 여성멸시로 황폐화된 지옥

여성존중의 사회에 대한 다함없는 격찬의 목소리

여성존중, 여성중시의 대화원을 꽃피고 동경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찾고 있다. 그들은 누리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나라의 꽃, 가정의 꽃으로 떠날수록 우리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두고 격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여성들을 보면서 국제민주여성연맹 위원장은 자기의 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조선여성들의 신심과 락관을 넘친 모습은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조선의 가는 곳마다에서 여성혁명가라는 크나큰 믿음속에 자기의 성스러운 사명을 다해나가고 있는 여성일꾼들, 여성근로자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볼수 있었다. 조선여성들은 끝없는 행복과 권리를 느끼며 애국의 평방을 아낌없이 바쳐가고 있다.》

로씨야신문 《레베카》도 우리 나라에서 여성들이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있다고 전하였다.

방글라데시신문 《블리즈》는 값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여성들을 소개하는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나라와 사회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고있다.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1946년 7월 30일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되었다.

주석께서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시었다.

여성들에 대한 김일성주석의 친언어이상은 김정일영도자애에 의하여 그대로 계속되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여성들의 건강과 더 좋은 생활조건보장을 위해 국가적투자를 아끼지않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온 사회에 여성중시의 기풍을 확립해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었다. 오늘 조선여성들은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적극 참가하여 혁명의 한복수바퀴를 떠밀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으로 되고있다.》

있는 존재로 되고있다.

일찍이 여성문제를 사회혁명적의 근본문제라 한 보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여성들에게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남녀평등권법령을 몸소 작성 발표하시었다. 이른바 법칙이라는 여성들이 사회발전에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격찬하였다.

영국신문 《더 뉴 위커》는 조선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보람찬 삶을 누릴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조건을 보장해주고있다. 조선여성들은 특별한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는데, 그들에게 충분한 산전산후휴가가 보장되고있다. 가는 곳마다 보건, 보육시설이 있다. 국가가 훌륭한 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건설해주고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 여성들의 행복상을 소개하는데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로씨야의 파즈프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3.8국제부녀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여성들이 열렬한 축하를 받고있다.

하나의 문방울에 온 우주가 비친다는 말이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자본주의가 흥내될수도 가진수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우리 나라 여성들의 행복상을 통해 배우로 느끼고있다.

여기가 여성들의 천국이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를 찾았던 로씨야의 어느 한 신문사주필은 감상록에 이런 글을 남겼다.

《저는 오늘 이 멋진 유선중앙연구소를 참관하고 세계의 어느 나라에도 없는 여성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국가가 이

여기가 여성들의 천국이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격이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그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가하고있다. 조선여성들의 증거에 넘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심장연구소의 우월성을 감상록에 이렇게 썼다.

《아주 훌륭한 병원입니다. ...제가 남성이기때문에 직업적으로는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여기에 와서 훌륭한 치료를 받게 되는 상상할수 없는 혜택은 조선의 미래를 볼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행복의 보금자리

포단 단장 구와파 세즈코 《여성들의 무거운 가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라가 세운것은 상상할수 없는 보금자리이다.》(일본여성주제사상연구회)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존엄과 인격이 훌륭히 담보되고있다. 그들은 남성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사회활동에 참가하고있다. 조선여성들의 증거에 넘친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은 상상할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여성들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를

우리 나라를 방문한 라오스여성동맹대표단 단장 씨씨 이 르넛손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방문하는데 조선여성들이 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많은 성과에 대하여 직접 느끼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여성들의 사회적지위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역할이 더욱 강화되고있다.

또한 그들이 가정과 사회의 꽃, 혁명의 꽃으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있다.

3.8 국제부녀절의 유래

1909년 3월 8일 미국 시카고의 여성노동자들이 독립투쟁자들의 각축한 취회와 역량을 반대하여 시위에 떨쳐나섰다. 그들은 임금인상과 생활처지의 개선, 남녀평등권과 자유를 요구하는 구호들을 외치면서 조직적이고 단결력을 힘있게 표시하였다. 그들의 투쟁은 전세계 진보적여성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다.

3.8 국제부녀절의 유래

전세계근로여성들의 전투적정령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세계근로여성들은 이때부터 해마다 국제부녀절을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자주위업을 위한 투쟁의 날로, 여성들의 평등과 권리를 위한 전세계 진보적여성들의 전투적단결을 강화하고 그 위력을 시위해마다 기념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온갖 자유와 권리를 보장

여기에 모성애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

어주는 전설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청년은 거처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로 두눈을 잃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청년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날아왔다.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눈을 기증하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그가 한쪽눈을 수술하고 봉대를 푸는 날이 왔다. 봉대를 푸는 순간 청년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그의 앞에는 한 쪽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그에게 한쪽눈을 기증한 사람은 다른나이 그의 어머니였다.

《두눈을 다 주고싶었지만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짐이 될것 같아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여기에 모성애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

어주는 전설같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한 마을에 어머니와 딸이 사는 청년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그 청년은 거처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로 두눈을 잃게 되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딸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청년에게 한가닥 희망을 안겨주는 소식이 날아왔다. 누군가가 그에게 한쪽눈을 기증하겠다고 하였다.

드디어 그가 한쪽눈을 수술하고 봉대를 푸는 날이 왔다. 봉대를 푸는 순간 청년은 놀라움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말았다. 그의 앞에는 한 쪽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뭇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있었던것이다. 그에게 한쪽눈을 기증한 사람은 다른나이 그의 어머니였다.

《두눈을 다 주고싶었지만 그러면 나에게 내가 짐이 될것 같아서...》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온갖 형태의 차별대상, 각종 폭력의 희생물

자본주의 나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차별은 고질적인 병으로 되고있다. 가장 우선하게 나타나는것이 노동생활에서의 극심한 차별이다.

미국에서 사회보조금을 제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장에서 장시간 혹독한 로동을 하면서도 일당 한푼의 임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년평균 수입은 남성들보다 훨씬 적으며 아프리카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9%,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8%에 그친다고 한다.

지중해연안의 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해가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70%이상 여성들이다.

자본주의 나라 여성들은 늑거리일자리마저 메울수가 가슴조

자본주의 나라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여성차별은 고질적인 병으로 되고있다. 가장 우선하게 나타나는것이 노동생활에서의 극심한 차별이다.

미국에서 사회보조금을 제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성들이다. 그들은 목화농장과 담배농장 그리고 농산물포장장에서 장시간 혹독한 로동을 하면서도 일당 한푼의 임금을 제대로 받아본적이 없다.

미국 노동통계국의 조사통계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년평균 수입은 남성들보다 훨씬 적으며 아프리카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69%, 라틴아메리카계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58%에 그친다고 한다.

지중해연안의 한 나라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16%나 적은 임금을 받고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낮은 수입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해가는 근로자들 가운데서 70%이상 여성들이다.

자본주의 나라 여성들은 늑거리일자리마저 메울수가 가슴조

포기할수밖에 없는 모성의 권리

자녀교육비, 치료비가 등 장래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전하였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나라에서 여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5000달러에 달하며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2000달러, 갓난아기의 하루입원비는 14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즉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있어 병원의 해산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해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문전걸걸을 당해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발생하고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신부들이 베푸는 아이들의 학비걱정을 한다는 이 아이가 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성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의 운명, 이것은 모든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필연적산물이다.

자녀교육비, 치료비가 등 장래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전하였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 나라에서 여성들의 해산비는 최고 1만5000달러에 달하며 산모의 하루입원비는 최고 12000달러, 갓난아기의 하루입원비는 14000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즉 보잘것없는 수입으로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여성들에게 있어 병원의 해산은 어렵도 없는 일이다.

해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장 해산을 앞둔 임신부들이 병원에서 문전걸걸을 당해 한지에서 해산하는 비극이 수시로 발생하고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임신부들이 베푸는 아이들의 학비걱정을 한다는 이 아이가 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모성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여성들의 운명, 이것은 모든것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필연적산물이다.

애국주의 교양에 힘을 넣고 있는 로씨야

로씨야에서 지난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해마다 기념하는 이날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쟁로병들이 세운 영웅적유물을 똑똑히 알도록 하며 국민들이 조국수호자로서의 영예감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으며 로씨야에서는 다양한 경축행사를 진행하고 로병들과 국민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했거나 현재 참가하고있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서 경의를 표시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푸틴이 이날에 즈음하여 크레믈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예는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과 로씨야연방 수상, 연방평의회 의장, 국가회의의장, 대외행정부장, 국방장, 국방상, 기타 상들과 국가 및 정치활동가들, 로병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최근 로씨야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되어오지만 침략과 전쟁발발의 온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 곳곳에서 신과썩은자들이 제세사범들 활개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위훈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지난해에 오스트리아에서 쏘련군인기념비가 모독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벨기에에서 조국수호자의 수도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나타났다.

유럽위원회는 한 회원은 로씨야가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고 말했다. 유럽의 일부 지역들에서 극단주의적행동이 확대되고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를 선전하고 파시즘과 인종우월론을 전파시키는 정당들이 늘어나고있다. 반동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외국으로 쏘련군대와 인민의 투쟁업적이 모두 망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애국주의 교양은 로씨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자라나는 세 대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있다. 애국주의교양이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 푸틴대통령은 학교들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책임자는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조국전쟁로병 7000명을 맞으며 전 국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이 애국주의의식을 개발시키는데 기분을 두르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말 로씨야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의 실효

로씨야에서 지난 2월 23일 조국수호자의 날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해마다 기념하는 이날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쟁로병들이 세운 영웅적유물을 똑똑히 알도록 하며 국민들이 조국수호자로서의 영예감을 간직하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고있다.

조국수호자의 날을 맞으며 로씨야에서는 다양한 경축행사를 진행하고 로병들과 국민들,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했거나 현재 참가하고있는 사람들과 그 가정에서 경의를 표시하는것을 전통화하고있다.

로씨야대통령 푸틴이 이날에 즈음하여 크레믈린성벽에 있는 무명전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다. 화환진정예는 위대한 조국전쟁로병들과 로씨야연방 수상, 연방평의회 의장, 국가회의의장, 대외행정부장, 국방장, 국방상, 기타 상들과 국가 및 정치활동가들, 로병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최근 로씨야에서는 애국주의 교양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지도 70년이 되어오지만 침략과 전쟁발발의 온상은 여전히 남아있다. 세계 곳곳에서 신과썩은자들이 제세사범들 활개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위훈을 말살하기 위한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다. 지난해에 오스트리아에서 쏘련군인기념비가 모독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벨기에에서 조국수호자의 수도에서도 이와 같은 시도가 나타났다.

유럽위원회는 한 회원은 로씨야가 제2차 세계대전을 도발하였다고 말했다. 유럽의 일부 지역들에서 극단주의적행동이 확대되고 인종주의, 민족배타주의를 선전하고 파시즘과 인종우월론을 전파시키는 정당들이 늘어나고있다. 반동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의 전범자들을 《영웅》으로 떠받치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역사가 외국으로 쏘련군대와 인민의 투쟁업적이 모두 망각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애국주의 교양은 로씨야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제기되고있다.

로씨야정부는 자라나는 세 대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고있다. 애국주의교양이 학교교육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있는 푸틴대통령은 학교들에서 이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로씨야대통령행정부 책임자는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위대한 조국전쟁로병 7000명을 맞으며 전 국가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들이 애국주의의식을 개발시키는데 기분을 두르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지난해말 로씨야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애국주의교양의 실효

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포함시킨 《로씨야연방의 새로운 군사교리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성을 높이기 위한 과업을 포함시킨 《로씨야연방의 새로운 군사교리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나라의 국경가이에 나토의 무력이 집결되고 미사일방위체계가 전개되는 등 현시기의 새로운 정세와 관련하여 로씨야가 지난 시기의 군사교리를 수정하면서 애국주의교양문제를 사업에 포함시켰던 것이므로 이 새로운 교리를 발표하였다.

로씨야가 진행되는 이 모든 사업들은 역사를 귀중히 여기고 전쟁로병들의 조국수호정신을 따르며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의지의 발현이다.

역사는 시대의 거울이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경험과 교훈을 맺고 역사적전통을 이어가며 미래를 개척한다. 조국전쟁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와 애국주의정통을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려는 로씨야의 노력은 앞으로 계속될것이다.

김철룡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사업들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천연가스개발계획

팔레스티나가 가지대알다다에 매장되어있는 천연가스를 개발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은 천연가스매장지를 개발하여 전력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자원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한다. 2월 23일 팔레스티나정부가 밝혔다.

마약 압수

폴란드경찰이 2월 26일 루마니아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서 431kg의 코카인이 압수되었다 한다. 한편 마약 수색 목적을 두었다. 잡혀나간 마약수색작전을 벌였다.

국제축구련맹

녀지구락부월드컵경기대회를 조직할것을 계획

이 계획은 3월 19일과 20일에 진행되는 국제축구련맹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토의결정된다

러시아는 2월 24일 미해군을 버지니아주에서 거의 동시에 발사된 3발의 준궤도로켓들을 이진 3탄도미사일방위체계를 갖춘 2척의 구축함에서 포착하고 추적하는 놀음을 벌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에서 생존권보장을 요구하여 시위

각종 범죄가 판을 치는 세상

사기협잡, 폭력범죄, 영국의 그레이터 맨체스터주에서 최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색성범죄를 강행한 65명의 범죄자들이 체포되었다. 2일 이탈리아남부에서 발생한 사기협잡행위를 일삼던 8명의 범죄자가 잡혔다 한다. 한편 오스트랄리아에서도 각종 범죄가 성행하여 주민들이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다. 특히 서부 오스트랄리아주의 범죄율이 다른 주들에 비해 알자리를 차지한다는 나타났다. 2월 27일이 나라 통계국은 지난해에만도

성행하고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적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현재 인신매매로 인한 세계적인 피해자가 약 21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그중 대다수가 여성들과 어린이들로서 고갈된 노예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한다.

청소년 범죄

일본에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성행하고있어 사회위법치리라고 되고있다. 2월 26일 이 나라 경찰청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식 등록된 청소년범죄건수만도 4만 836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로골화되는 침략전쟁책동

미국과 일본이 공모결탁하여 침략적인 군사연습에 계속 열을 올리고있다.

2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군사기지에서 미해군대와 일본특상사(사위대)가 미군의 수륙방공자를 리용한 두 무의탄발환훈련을 토다시 감행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미군용수송기(MV-22 스프레이)로 부상자로 가상의 특상사(사위대)원을 후송하는 놀음도 벌어졌다. 《조선중앙통신》